

재일한인 소설에서의 혼인, 결핍 현실의 상징과 그 탈출구*

이 헌 홍**

차 례

- | | |
|-------------------------|-----------------------|
| 1. 글머리 | 2.2. 일세의 결핍과 출구의 차세대 |
| 2. 혼인에 내재된 결핍 현실과 그 탈출구 | 2.3. 자력 획득 출구의 빛과 그림자 |
| 2.1. 결핍의 심화와 보이지 않는 출구 | 2.4. 바다 건너 출구의 벽과 협로 |
| | 3. 마무리 |

국문초록

재일한인 소설 중에서 혼인 문제 즉, 부부관계를 맺거나 부부생활을 영위하는데 얽힌 사연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작품은 필자가 찾은 것만도 10여 편이다. 여기서는 그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혼인을 통해 결핍 현실을 담아내면서 그로부터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1. 결핍의 현실 때문에 혼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음은 물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론, 그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그린 작품이 김정식의 <낙일>(1966년)이다. 여기서 주인공 내외가 겪는 삶은 광복 전후의 혼란기를 무대로 전개되는 재일한인의 결핍 현실은 물론, 출구조차 찾을 길 없는 암울한 일상 그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다.

2. 김석범의 <결혼식 날>(1978년)에서는 결핍 현실로 인한 1세의 안타까움과 그로부터의 탈출구가 2세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련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재일한인의 특이한 삶이 대물림되면서 조금씩이나마 밝은 빛을 더해가는 모습을 더듬게 된다.

3. 원수일의 <뱀과 개구리>(1983년)에서 사위와 장모는 혼인을 통해 각자의 결핍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총각은 사랑하는 처녀를 아내로 맞은 대신 장모에게 종속당하는 처지가 된다. 이처럼 혼인을 통해 스스로 마련한 출구에도 함께 하는 공생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각자의 목표에 집착하는 이기적 영역 또한 엄연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4. 현행자의 <순이의 결혼>(1997년)은 결핍 현실과 그 돌파구로서의 혼인이라는 의미와 함께, '미지의 세계 일본, 그곳에 사는 재일동포와의 결혼'이라는 환상에 빠져 서두른 결혼이 몰고 올 위험성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불행으로만 치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나서는 여주인공의 마음에서 우리는 혼인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5. 위의 논의로 미루어볼 때 혼인의 진정한 의미는 어느 일방의 행복 즉, 결핍에 대한 충족이나 소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헤쳐가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일구어 나감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석 대상 작품의 창작 시기가 우연히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인데, 이에 따라 결핍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 재일한인 소설, 혼인의 소설적 형상, 결핍 현실의 상징, 결핍 현실로부터의 탈출

1. 글머리

재일한인은 특이한 존재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국과 피지배국 국민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생겨난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면서도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즉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름도 한국식(본명)과 일본식(통명)으로 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중에는 조국에의 귀환을 그리다가 생존 현실에 묶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1세대의 애달픈 사연이 있고, 2·3·4·5세대에 이르면서 일본에서의 정주가 기정사실화 되자 점차 동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본 속에서의 경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모색하는 등의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들은 같은 재외동포이면서도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조선 땅을 약탈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으로는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 등을 들 수 있다.¹⁾ 이러한 정책 수행의 전위부대인 동척(東拓), 수리조합 등의 마수에 농토를 빼앗기고,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사연은 너무나 처절하면서도 익히 알려진 일이다. 이들은 칼바람 부는 만주 땅을 헤매기도 하고, 징용이나 징병으로 전쟁 마당에 끌려가는가 하면, 생존을 위해 일본의 각종 공사장으로 흘러들어 날뎀팔이 신세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1)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 작성위원회 편, 신준수·이봉숙 옮김, 『재일 한국인의 역사』, 역사넷, 2007, 34-85쪽; 前田憲二 외, 『百萬人の身世打鈴 -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恨』, 東方出版, 大阪, 1999. 등을 참조. 후자는 8명의 취재진이 7년간에 걸쳐, 생존을 위한 도일 또는 강제 동원된 희생자나 그 가족 등 100명의 증언을 채집하여 문자로 옮긴 자료집이다.

형편이기도 했었다.²⁾

만주와 연해주로 건너간 동포들의 삶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일본 땅에서 연명하는 동포들의 삶은 여기에다 차별까지 더해진 눈물겨운 것이었다.³⁾ 이들 지역의 동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재중한인, 재일한인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이 현지에 잔류하게 된 사연에는 광복 직후의 극심한 교통난, 휴대금품의 지나친 제한, 또 다른 점령군에 의해 분할된 조국, 이미 남의 터가 되어 버린 고향, 즉 고향 상실의 아픔 등의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⁴⁾

재일한인의 존재 자체가 특이한 만큼 그들의 삶이 지닌 특수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때문에 재일한인의 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다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생활사를 담고 있는 각종 자료들로는 면담 녹취한 구술 자료, 영상 자료, 자전적 슬회, 보고서, 시, 소설, 수필 등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들의 구술자료, 수필과 소설 중에서 생활사 이야기를 가려내어 그 양상을 살핀 바 있다.⁵⁾

재일한인의 특이한 삶을 그리고 있는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는 근자에 이르러 상당정도 이루어지고 있다.⁶⁾ 필자 또한 이들을 주목하고 그 실

2)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백만인의 신세타령』(위의 책) ; 이봉언 지음, 윤상인 옮김,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동아아시아사, 2007 ; 중국조선족청년학회 편, 『중국조선족 이민실록』, 연변인민출판사, 1992. 등에 많이 보인다.

3) 이현홍은 이들을 ‘내몰린 사람들의 한계상황과 생존현실’, ‘이주 정착 체험의 설화적 형상’ 등의 개념을 설정하여 살핀 바 있다. 이현홍, 「재일한인의 삶과 이야기」, 『구비문학연구』 제2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12, 113-146쪽 ; 이현홍, 「황금은 흑사심의 창작설화적 성격」, 『동남어문논집』 제19집, 동남어문학회, 2005. 3, 257-280쪽(이현홍, 『동북아시아 한민족 서사문학 연구』, 2005, 12.에 재록) 등을 참조.

4) 『재일한국인의 역사』(앞의 책), 106-129쪽 참조.

5) 이현홍, 「재일한인의 생활사이야기와 서사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학회, 2003, 89-142쪽.

6) 재일한인 문학은 일본어로 표기된 문학과 한국어로 표기된 문학이 공존하고 있다. 먼저, 재일한인의 한국어문학에 대한 자료 정리 및 기존 연구 검토, 갈래별·작가별 특성 등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묶은 최근의 책으로는 한승욱 외, 『재일동

상을 몇몇 각도로 나누어 살핀 바 있으며,⁷⁾ 근자에는 특히 이에 해당되는 일련의 소설작품들을 재일한인 생활사소설이라 명명하고⁸⁾ 그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떠돌이의 고난, 망향의 아픔, 한인마을의 애환, 세대 간의 갈등, 민족의식, 자녀교육 등에 얽힌 삶의 모습들이다.

이에 더하여 여기서는 재일한인의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련의

포 한국어문학의 민족문화적 성격연구』(국학자료원, 2007) ;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국학자료원, 2007) ; 이현홍, 「한양 소재 재일한인문학의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제2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01-122쪽 등이 있다. 그리고 일본어문학 자료는 이소가이 지로 등이 엮은 『在日文學全集』 총18권, 勉成出版, (東京, 2006)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에 대한 개괄적 소개 및 개별 연구논문들을 묶은 책으로는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새미, 2006) ;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재일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1,2,3권(제이앤씨, 2008.8.)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종희, 설성경, 홍기삼 등이 편찬한 몇몇 단행본과 함께 개별 저자들이 더 있으나, 이들은 모두 앞의 책들에서 소개되고 있기에 개별적 열거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들과 함께 국제한인문학회 주관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라는 연구논문집이 2004년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재일한인 문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 논문들을 찾을 수 있다.

- 7) 이들 논문의 목록에 대해서는 이현홍, 「재일한인 생활사소설 연구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3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1, 157쪽의 각주 8)을 참조.
- 8) 이현홍의 논문(2007, 2009)을 말한다. 여기서 그는 ‘특이한 집단의 삶, 또는 그 집단의 전형이 될 만한 개인의 삶을 다룬 일련의 소설들을 생활사소설’이라 규정하면서, 이런 특이 집단을 ‘전쟁이나 강제 이주 등의 요인으로 타의에 의해 국외로 내몰린 사람들이 거주국의 문화와는 다른 독자적 문화를 이루며 모여 사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어서 그는(이현홍, 2008. 10) ‘생활사소설은 생활사이야기의 하위 갈래’라고 하면서 “생활사이야기는 생애담, 일상경험담, 신세타령 등과 대동소이한 개념이다. 생애담은 일생의 이야기, 경험담은 개별 경험 단위의 이야기, 신세타령은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라는 등의 이미지를 우선 떠올리게 된다. 이에 비해 생활사이야기는 경험담이 지닌 개별성의 어감을 포괄하는 이로움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테면, 특이한 집단이나 개인의 삶에 얽힌 사연을 일정한 시간적, 인과적 고리로 묶어내는 이야기라는 뜻이다.”(187쪽)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소설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 즉 부부생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전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부부생활로 이어지므로 양자를 아우르는 개념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혼인의 개념 또한 그러하다.

재일한인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남의 땅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애초부터 결핍의 현실 바로 그 자체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재일한인의 혼인 또한 결핍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결핍을 해소하려는 한 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재일의 삶에서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결핍은 혼인만으로 쉽사리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혼인 문제를 중심 테마로 다루고 있는 소설 역시 그 결핍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재일한인의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 작품에서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재일 1세가 아닌 2·3세의 사람들이다.⁹⁾ 간혹 1세의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하나 그 또한 2세의 결혼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된다. 1세들의 생활사에서 주요 관심사는 생존의 몸부림과 투쟁, 망향의 아픔, 민족의식 등이다.¹⁰⁾ 이에 비해 2·3세의 관심사는 교육, 혼인, 취업, 정체성 같

9) 1960년 이전 재일한인의 혼인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 김찬정은 1950년대 이전 재일한인끼리의 혼인은 대략 80% 이상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정은 상당 정도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필자 또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봉언이 편찬한 각주 2)의 책을 통해 1세들의 혼인 상대와 그에 따라지비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동족끼리의 혼인이 대략 76%로 나타났다. 참고로 김찬정의 책에서 밝혀진 연대별 통계 자료를 보면, 1960년(65.7%), 70년(56.3%), 80년(42.2%), 85년(27.9%), 89년(18.4%), 95년(16.6%)의 수치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김찬정 지음, 박성태 외 옮김, 『재일 한국인 백년사』, 제이앤씨, 2010, 255-258쪽을 참조.

10) 이현홍의 논문(2007, 2008)을 참조.

등 등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거나 다양해지기도 한다.¹¹⁾ 그래서인지 혼인 문제를 중심 모티프로 다룬 작품은 필자가 구해 읽은 것만도 10편 내외에¹²⁾ 이른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을 통해 재일한인의 삶과 의식 세계를 탐색하는 작업 또한 그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¹³⁾

이런 관점에서 재일한인 소설에서의 혼인 문제를 필자는 1)결핍 현실의 상징과 그 탈출구, 2)세대·계층 간의 갈등과 소외, 3)평등과 차별의 이중주¹⁴⁾ 등으로 나누어 파악함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혼인이라는 문제를 통해 이들의 삶과 의식세계를 세 각도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들 세 유형을 한꺼번에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 논문에서는 우선 첫째 유형을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2. 혼인에 내재된 결핍 현실과 그 탈출구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매우 모자라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테

-
- 11) 이에 대해서는 이현홍, 앞의 논문(2009) ; 福岡安則 外, 『同化と異化のはざまで- 在日若者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葛藤-』(동화와 이화의 사이에서-재일 젊은 세대의 아이덴티티 갈등-), 新幹社, 1991 ; 福岡安則 外, 『ほんとうの私を求めて- 在日二世三世の女性たち-』(진정한 나를 찾아서-재일 2세, 3세의 여성들-), 新幹社, 1991, 등을 들 수 있다.
- 12) 필자가 찾은 것만 그렇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 정도 자료만으로도 재일의 혼인 문제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13) 이들 소설작품 외에도 재일의 혼인 관련 정보를 담은 자료를 널리 찾을 수 있는데, 그 형태는 청취조사, 자전적 술회, 수필 등이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이현홍의 논문(2003)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는 앞의 각주 1), 2), 11)과 함께, 재일한인 사회에서 발간한 종합잡지인 『한양』 등을 두루 참조.
- 14) 명목상, 관념상으로는 당연히 평등을 내세우지만, 삶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그리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면 인간의 일상적 삶에 필요한 의식주, 교육, 취업, 인권 등 각종의 필요 요소가 현저히 모자라는 상황을 두고 일컫는 말인 셈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일한인의 삶은 이런 모든 면에서 결핍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결핍 현실의 삶에 허덕이면서도 그들은 그 결핍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혼인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이런 결핍 현실과 그로부터의 탈출을 모색하는 등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는 <낙일>, <결혼식 날>, <뱀과 개구리>, <순이의 결혼> 등을¹⁵⁾ 들 수 있다.¹⁶⁾

이들 작품에서는 남녀의 결연에 따른 혼사장애나 혼인 후의 부부생활 등이 결핍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러한 결핍의 현실 즉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갑갑한 일상을 그리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결핍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 모색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는다. 말하자면 혼인을 통해 결핍 현실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몸부림도 아울러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소설들인 셈이다.

그리고 재일한인의 혼인 문제를 다룬 소설들은 재일끼리의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주로 일본인과 재일, 재일과 본국인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항목의 경우에는 재일의 결핍 현실과 관련된 혼인문제이므로 혼인 대상자의 국적이나 특정 세대

15) <落日>은 『漢陽』, (東京, 1966년 4월), 310-318쪽에 실린 김경식의 작품이며, <결혼식 날(結婚式の日)>은 『三千里』(1978년 겨울, 16호, 236-250쪽)에 실린 김석범의 작품이다. 그리고 <뱀과 개구리>는 元秀一, <사위와 가시어멈(娘婿とカシオモン)>, 『三千里』(1983년 가을, 35호, 168-179쪽)에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김정혜, 박정이가 번역한 책(이카이노 이야기, 새미, 2006, 145-166쪽)을 텍스트로 한다. <순이의 결혼(スニの結婚)>은 『호르몬 문화(ホルモン文化)』 7호 (東京, 新幹社, 1997년 2월, 131-138쪽)을 텍스트로 한다.

16) 이 외에도 원수일의 소설집 『이카이노 이야기』에 실린 <희락원>의 둘째, 셋째 에피소드도 이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낙일>을 분석하면서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등에 크게 구애되지 않는다.

2.1. 결핍의 심화와 보이지 않는 출구

재일한인의 일상은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참여나 활동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 유형무형의 각종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말년의 강제동원과 그 마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의 생활, 일본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열악한 임금, 빈약한 먹을거리, 움막처럼 초라한 주거지 등에 관한 각종의 슬회와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이와 같은 일상의 경제적 궁핍과 함께 대사회적 참여나 활동에서의 제약 또한 익히 알려진 일이다. 특히 1세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정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이를테면 극도의 결핍 현실이라고나 할까. 그들의 이러한 결핍 현실이 소설에서의 혼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경우를 살필 수 있다.

<낙일(落日)>이 바로 그러하다. 이는 김경식이 1966년에 발표한 작품이다.¹⁷⁾ 재일한인 떠돌이 화가 병순과 그의 일본인 아내 도키코(時子)와의 동거 생활에 얽힌 기막힌 사연의 이야기이다. 그들이 어떻게 만나 아들 하나, 딸 하나씩을 두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루어 가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두 사람 모두 결핍 상태에서의 기이하고도 운명적인 만남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분위기만 보인다.¹⁸⁾ 나중에 밝혀지지

17) 『漢陽』 1966년 4월호, 310-318쪽에 실린 김경식의 작품이다. 한양은 일본 동경에서 간행된 우리말 종합잡지이다. 여기에는 시, 소설, 수필, 평론 등의 문학작품도 꽤나 된다. 이들 중에는 재일한인 작가와 국내 작가가 두루 보이는데, 수필을 제외하고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 더 많다. 그런데 김경식은 이 외에도 2편의 소설을 더 수록하고 있다. 소설 내용에 나타난 분위기나 어조 등으로 보아 이 작품은 재일한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작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설가 김경식에 관해서도 물론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현홍의 재일한인 한국어문학 관련 논문(2005, 2007)을 두루 참조. 이하 이 작품을 인용할 경우에는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르고, 그 인용문 끝에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만, 병순은 밀항자였다 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하여 불법 거주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불안한 신분 탓만도 아닌 것이 병순은 본디부터 자기 일을 남에게 얘기 않는 성격이었다. 그러므로 10년간 동거한 일본인 아내 또한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병순에게는 중학교 때부터의 친구이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영희와 철수가 있었다. 어느 날 영희에게 병순의 아내라면서 도키코라는 생면부지의 일본 여인이 나타나서는 남편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닌가? 영희와 병순은 광복 전에 함께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학도병 징집을 피해 1944년의 어느 여름날 각자 숨을 곳을 찾아 도망치면서 서로간의 소식이 두절된 사이였다. 그로부터 6년 만에 뜻밖에도 두 사람은 동경의 어느 거리에서 마주친다. 1950년의 어느 날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된 둘은 그 뒤로 제일 중학 동창끼리의 모임에서 서너 번 만나 오늘에¹⁹⁾ 이르고 있는 사이일 뿐, 그간의 개별적 행적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눈 바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물론 병순이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안다는 것은 이십년 전의 병순이고 해방 후의 병순이란 사람은 아주 모른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저는 요전까지 당신같은 부인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가 밀항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요즈음이지요.”(312쪽)

도키코와 병순과의 동거 생활 10년차의²⁰⁾ 어느 날 잠깐 외출하듯 집을 비운 남편이 반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하게 된다. 처음 며칠 동안은 곧 돌아오겠거니 생각한 도키코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평소에도 가끔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2,3일 내지는 1,2주 정도 집을 비우는 일이

18) 병순은 평소 자기 신상 관련 얘기를 남에게 하지 않는 성격이고, 그의 아내 도키코 또한 남편에 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알려고 엄두조차 내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듯한 언급이 보인다.

19) 작품 속에서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것은 대략 1960년대 중반을 가리킨다.

20) 이로 미루어 보건대 둘의 동거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듯하다.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못한 그의 아내 도키코가 영희의 주소만을 들고 그를 찾아 온 것이다. 영희의 주소란 것도 동창회 명의로 배달된 엽서에 명기된 발신인의 그것이 유일한 정보였으니 저간의 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사람은 언제나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는 병순이가 제 남편이건 뭐이건 아이들만 있으면 되잖아 하고 생각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 돌려 생각해보면 언제 체포당할지 모르는 죄수 모양으로 숨어다니던 그가 불쌍해요. 그것을 자기의 처라는 나한테도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것은 돌려 생각해보면 나와 아이들까지를 근심시키면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집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었던 그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나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318쪽)

이 작품의 문맥에는 병순의 밀항과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는 일제 강점기 말엽인 1944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있었는데, 학도병 강제 징집에 혈안이 된 군경의 추적을 피해 친구 영희와도 헤어져 몸을 숨긴 사정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다. 유학생으로서의 일상적 학업이나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이는 더할 수 없는 결핍의 현실이다. 그런데 그 상태 뒤에 핏의 현길. 그런데 우연히 둘이 처음 만났으니 그때도 병순은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던 셈이다. 학도병으로의 강제 징집을 피해 쫓기던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면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 즉 삶의 제반 여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결핍 현실의 나날에 시달리는 신세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비극의 진원지는 물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비롯된다. 병순이 중학교 교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일본으로 건너온 이유 또한 그러하다. 소설의 내용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그것은 아마도 전쟁으로 중단된 일본에서의 유학 시절, 그때 못다 한 미술공부를 좀 더 하고

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한다. 도키코와 만난 인연, 동거생활 중의 비좁은 거처에서도 코딱지만한 화실을 두고 그림을 그린 그의 일상들에서 그러한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의 사정은 이미 변해버린 뒤였다. 따라서 그 또한 의욕만으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음은 물론, 발붙여 사는 것조차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지배국이 아니기에 병순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었다.²¹⁾ 그러나 그의 도일은 일본의 실정법상으로 보면 당연히 불법이었고, 그 불법을 위조 신분증으로 가장하고 사는 범법자로서의 떠돌이 화가였던 셈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적어도 해방공간의 몇 년 동안에 양국을 오가는 일은 익숙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리 낯설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²²⁾

그런 가운데 만난 일본 여인 도키코와의 동거 생활 10년에 아이가 둘이나 생기게 되자, 그의 아내 또한 야간 업소에까지 나가면서 경제적 결핍의 상태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나날이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병순은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을 아내에게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위조 신분증이 탄로 나서 지명수배령이 내리게 되자 그는 그 뼈아프고도 면목 없는 사정을 아내에게조차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의 밀항이라는 도피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

21)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 연합국(미국)의 통치에서 벗어난다. 이 조약의 왜곡된 시행에 의거 제일한인은 자기 선택의 기회도 없이 일순간에 외국인인 되어버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국신민이라며 징집을 강요하던니 이번에는 일순간에 외국인으로 내모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지시에 따른 요건이나 기간 등을 미처 따르지 못해 제때에 외국인등록증을 발부받지 못하던지 하면 불법체류자가 되기 십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광복 공간을 전후 한 시기에 행해지는 그들의 밀입국에 별다른 죄의식이 있을 리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역사』, 앞의 책, 118-139쪽을 참조.

22) 각주 21)을 통해 이런 사정을 유추할 수 있다.

닐까 한다.

이와 같은 극한의 결핍 상황에 무슨 돌파구는 없을까? 남편이 자취를 감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도키코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영희는 딱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는 다만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원망할 따름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한국 사람을 남편으로 하여 십년이나 함께 산 이 일본 부인이 ‘인간의 시련에 이 이상 더 가혹한 시련이 어디 있을까 하는 여인다운 감각 속에서만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나오겠다는 의욕조차 없음을 느낀다. 이런 결핍 상황의 남녀에게 무슨 민족이니 애국심이니 하는 단어’가 필요할까.²³⁾

다시 영희를 찾아온 도키코가 자기는 여태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즉 자신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이 그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작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만을 바라는 동안, 병순은 자기에게도 말 못할 고뇌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과 살면서도 재일한인의 고달픈 삶을 전혀 알지 못한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남편이 처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도키코가 남편을 다시 만나 아들딸과 함께 살 방도, 즉 결핍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탈출구는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사망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캄캄한 현실로 인하여 그 방향이나 거리조차 가늠하기 힘든, 막힌 탈출구인 셈이다.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우리민족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깊게 남아있음을 아울러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낙일>은 그 탈출구가 좀체 보이지 않는 극단적 결핍의 상황을 남녀 간의 결연 내지는 부부관계를 통해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둘의 존재를 언뜻언뜻 내비치면서 말이다. 삶의 목표 내지는 지향점을 제대로 살필 여유도 없이 하

23) 318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루하루의 생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재일 1세들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재일한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비극적 부부관계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셈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황국신민임을 선포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면서까지 내선일체를 주장하던 일본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패전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마디 의논도 없이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면서 이 지시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는 사람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가한 후에 국외로 추방시켰으니 주인공 병순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일방적 처사의 희생양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 일본에서의 그의 삶은 애초부터 결핍으로 출발한 것임은 물론, 광복 후에도 범법자라는 낙인이 더해진 후였으니 그가 나아갈 곳이라고는 그 지점은 커녕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암흑 그 자체였던 것이다.

2.2. 일세의 결핍과 출구의 차세대

김석범의 <결혼식 날(結婚式の日)>²⁴⁾도 이와 비슷한 유형, 즉 혼인을 통해 결핍현실의 구체적 실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내’가 친구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고속열차 안에서 떠올린 26년 전²⁵⁾의 일이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혼주인이 친구의 결혼식에 엮힌 ‘나’의 기막힌 이야기이다. 그 사연인즉 오늘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부 아버지의 26년 전 결혼식에 참석할 여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주인공 ‘나’의 궁핍 상황과 그 참석을 위한 최후의 비책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기억이다. 것처럼 뼈아픈 ‘나’의 기억이 오늘 그 친구 딸의 결혼식과 병치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되새김되는 것이다.

그런데 극단적 결핍 상황으로 인해 <낙일(落日)>에서는 그 방향조차 보이지 않던 출구가 이 작품에서는 어렴풋이 보인다. 비록 자녀 세대로

24) 『三千里』, 1978년 겨울호(통권16호), 236-250쪽에 실린 일본어 작품이다.

25) 작품 내의 문맥으로 추산해 보면, 광복 후 2,3년 무렵의 시점이다.

넘어와서 보이는 출구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낙일>이 1966년의 작품임에 비해 <결혼식 날>은 이보다 12년 뒤인 1978년의 작품이라는 시간상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 아무튼 주인공 ‘나’는 친구 딸의 결혼식, 즉 차세대의 혼인에서 자기 세대의 결핍 현실을 넘어서는 탈출구로서의 기분 좋은 감정에 젖어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도쿄의 작은 출판사에 근무하던 ‘나’는 식비도 될까 말까할 정도의 박봉 탓에 숙소를 따로 구할 형편이 못되었다.²⁶⁾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잠자리가 바로 퇴근 후의 빈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의 일이다. 숙소가 아닌 사무실이니 잠자리가 불편한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거기에다 목조 2층의 작은 건물의 한 칸에 세든 사무실인지라 건물 경비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불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등의 구차한 일상이다.

이런 딱한 사정의 내가 어느 날 교토에 있는 친구로부터 결혼 청첩장을 받게 된다. 그 친구는 나와 매우 친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므로 꼭 참석해야 하는 결혼식이다. 그런데, 축의금은 고사하고 한 달 월급의 절반에 이르는 도쿄와 교토 사이의 열차 요금, 그것도 전날 저녁 11시에 출발해서 그 이튿날 10시경에나 겨우 도착하는 열차인데, 그 요금마저도 구할 방도가 나에게서는 없었다. 백방으로 다니면서 돈을 빌리려 안간힘을 쓰는데도 쉬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친척집을 찾아가 여비의 일부나마 빌려달라고 떼를 쓰면서 줄라보기로 한다. 그 친척 또한 사는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거절하다 못 견딘 친척은 ‘현금이 없다’며 금빛 시계를 내놓는데, 그것을 들고 좋아라고 전당포를 찾을 때까지만 해도 일이 해결되

26) 출판사라고 해도 일본의 어느 민주단체 기관지 편집부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 대우야 보나마나한 일이다.

는 듯했다. 그러나 ‘고장 난 시계라 아무 쓸모가 없다’는 전당포 주인의 냉랭한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처럼 갖은 노력을 다하였건만 이도 저도 다 허탕만 치게 되니 도무지 해결책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택한 마지막 수단이 무임승차였다. 환승객 자격의 입장권으로 열차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차표 점검하는 승무원의 눈을 피해 목적지인 교토까지 가보자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둑열차타기가 예나 이제나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님은 물론,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쿵덕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숨을 죽이고 있는 찰나에 울려 퍼지는 열차 출발의 벨 소리,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말았던 내가 아니었던가. 그로부터 26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바로 그 친구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열차에 앉았는데, 출발을 알리는 신호에 깜짝 놀라면서 옛날의 그 아픈 기억이 새삼 떠올랐던 것이다.

“꿈속인가, 꿈속의 차안인가, 조선옷을 입은 남자 하나가 내 곁에 서 있었다. …… ‘너는 어디에서 와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가?’ ‘20여 년 전의 오후 11시부터 왔습니다.’ 자고 있는 내가 대답했다. …… ‘음, 무엇을 타고 왔는가?’ 나는 분명히 신칸센(고속열차)을 탔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기분이 들었다. 나로서는 알 수 없다. …… ‘너는 어디로 가는가?’ ‘조금 전에 말한 오후 11시부터 출발해서 20여 년 후의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 여보세요, 여보세요.”²⁷⁾

승무원의 검표 요구에 잠이 깬 ‘나’는 틀림없이 신칸센 열차에 타고 있

27) 『三千里』, 앞의 책, 239쪽. 夢のなかか、夢のなかの車中のか、一人の朝鮮の周衣を着た男が私の傍に立っていた。……おまえはどこからやって来て、そこで眠っているんだ? 二十数年前の午後十一時がらやって来ました、眠っている私が答える。……うむ、何に乗ってここまで来たにか? 私はたしかに新幹線に乗ったはずだった、そうでもないような気がする。私には分からない。……おまえはどこへ行くのか? 先刻いった午後十一時から出発して二十数年後の十二時に向っているんですよ……。もしもし、もしもし……。

는 몸이다. 그러면서도 이 열차는 그날의 오후 11시에 도쿄 역 홈을 발차했던 것과 똑 같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차비를 구하지 못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궁핍했던 상황, 그때만 해도 좀처럼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결핍 현실의 출구가 오늘은 꽤나 밝은 모습으로 펼쳐진 것이다. 너무나도 궁핍한 현실 때문에 친구의 결혼식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차를 놓치고 말았던 당시의 아픈 기억을 오늘에야 비로소 지울 수 있는 기회라고 느낀 것일까. 그러나 그 아픈 기억을 지우려면 그때 친구의 결혼식 풍경을 떠올리면서 지워나가야 하는데, 그 윤곽이 잘 잡히지 않는다. 궁여지책으로 택한 마지막 방법이 인상적이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인공에 대한 축사에서 그 사연을 밝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화려한 장소에서의 축사에 어울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신부 쪽을 향하여 우선 오늘 너의 결혼식을 아무래도 부모님의 결혼과 겹쳐 본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중략) 나는 (너의 부모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결혼식 전날 오후 11시 도쿄 발 급행열차에 무임승차하려고 했지만 결국 타지 못한 경위를 ‘금빛시계’의 일은 생략하고 간단히 이야기 했다. 식에 참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전도 치지 못하는 무례를 거듭 범했다. 나는 그것을 너의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싶다. (중략)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있어 오늘은 행복한 하루라고 축사와 사과를 함께 하며 인사를 마쳤다.”²⁸⁾

28) 위의 책, 248쪽. このような華やかな場所での祝辞になるものかどうか分からなかったが、私は新婦のほうに向ってまず、きょうのあなたの結婚式にどうしてもしご両親の結婚式を重ねて見てしまうのを許してほしいといった。(中略)私は結婚式前日の午後十一時東京駅発急行列車に無賃乗車しようとして果せなかったいきさつえお、“南京虫”の件は省略して簡単に話した。……式に参加できなかっただけではなく、祝電も打たずに非礼を重ねた。私はそれをあなたのご両親にお詫びしたい。(中略)きょう私はこの席でそれえおほぐすことができるよな思いがする。私にとってきょうは幸福な一日だ、と祝辞ともお詫びともつかぬことをしゃべって挨拶をすませた。

위에서 보듯 26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찾은 ‘나’에게 비친 결혼식은 결코 출구가 막힌 암흑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²⁹⁾ 오늘 날이라고 하여 재일한인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의 제한이 말끔하게 걷혀진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 제약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혼식은 ‘분단조국의 그림자가 없었으니, 남도, 북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고 많은 일본인도 참석했던 멋진 결혼식’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결핍 현실의 상징이었던 청년시절의 결혼식 이미지가 비록 작은 일부에서나마 밝은 기억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아래에 보이는 ‘나’의 독백이 바로 그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살아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멋진 일이고, 그것은 혜택 받은 일일 것이다. 신칸센으로 하루 만에 되돌아오는 오늘 하루, 나에게서는 작은 행복을 느끼는 하루였지만 그것이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와 결부되었을 때, 나는 더욱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³⁰⁾

위의 두 작품 즉 <낙일>과 <결혼식 날>은 결핍 현실의 상황을 혼인 내지는 부부생활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출구조차 보이지 않던 전자의 답답함이 후자에서는 뒷날의 어떤 계기에 의거 작고 부분적인 것으로나마 조금씩 밝은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년대의 <낙일>에서는 결핍 현실의 돌파구가 그저 캄캄한 상태로밖에 비치지 않았는데, 70년대 작품인 <결혼식 날>에서는 1세의 혼인에 담긴 결핍 현실, 그리고 닫혔던 출구가 26년이 지난 다음인 2세의 결혼식에서

29) 주인공인 ‘나’와 서술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있어 좀 거친 문맥이기는 하나 이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30) 『三千里』, 앞의 책, 250쪽. 小さなことでも生きて結着を見ることができるのは素晴らしいことであり、それは恵まれていることだろう。新幹線で日帰りのきょうの一日、私にはささやかな幸福の一日だったが、しかしそれが人生えお生き続けるといふことの意味と結びついたとき、私はもっと大きな幸福を感じていた。

야 겨우 열리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런가 하면, 80년대의 작품에서는 결핍 현실의 돌파구가 혼인을 통해 직접 마련되는 모습으로의 변모를 보이기도 한다.

2.3. 자력 획득 출구의 빛과 그림자

재일한인의 생존 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1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생존을 위한 떠돌이 의 삶, 그에 따른 의식주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다른 길이 있을 리 없다. 혼인도 물론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혼인의 과정에 개인끼리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그 결과 즉 혼인을 통해 삶의 현실을 고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뱀과 개구리>가 바로 그런 작품이다.

이는 원수일이 지은 일본어 작품인데, 필자가 사용한 텍스트는 한글로 번역된 작품집이다.³¹⁾ 이카이노의 한인 마을에 사는 외톨박이 총각 상진이는 가죽점퍼 봉제소의 견습공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카이노는 오사카에 있는 일본 최대의 한인 마을이다. 이 지역의 인구는 16만여 명인데, 그 중에 4만여 명이 재일한인이다.³²⁾ 이들은 인근의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영세한 규모의 가내수공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주로 비닐, 플라스틱, 가죽 등으로 만드는 각종 일용품의 부품이나 봉제 등의 일감들인데,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정도의 소규모이다.

31) 원수일 지음, 김정혜·박정미 옮김, 『이카이노 이야기』, 새미, 2006, 이 작품의 원작은 1983년 『삼천리』에 <사위와 가시어멈>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32) 金德煥, 「新 猪飼野 事情」, 『濟州道』 1, 耽羅研究會, 1989, 60-67쪽을 참조. 여기서 이카이노(猪飼野)라는 지명을 쓰고 있다. 이카이노는 일본에 있는 한인 마을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지명이다. 그런데 이카이노라는 지명은 1973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이쿠노구로 바뀌었다. 이쿠노구의 생업이나 풍경 등에 대해서는 임채완 외 5인 공저, 『재일한인 집거지역 사회경제』, 집문당, 2005, 116-125쪽을 참조.

주인공 상진은 이 마을에 있는 봉제소의 견습공으로 흘러들어온 청년이다. 그런 청년이다 보니 상진이가 가진 재산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그야말로 결핍의 상태 그 자체이다. 그런 형편의 상진이니 ‘누가 봐도 아내를 맞아들일 여유는 없었음’이 분명했다. 이런 상진의 가슴에 가네야마 할망의 예쁜 딸 정자의 얼굴이 꽃혀들게 되고, 이로부터 가진 것 없는 상진의 구애작전이 시작된다.

마침 정자도 상진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다. 그러나 호랑이 같은 어머니 가네야마 할망의 승인이 없고서야 언감생심 혼인이라는 말을 밖에도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과부로 단련된 강인한 생활력, 여걸 풍의 큰 덩치에 두주불사하는 주량까지 두루 갖춘 가네야마 할망이 쉽사리 딸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 그녀가 처음 내세운 조건은 근본(혈통)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상진은 봉제소 관리책임자, 조선시장 골목의 양복점 사장 등을 동원하여 가네야마 할망의 호감을 사려는 노력을 백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진과 그 후원자들의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만 거듭할 따름이다.

“우리는 귀한 딸년의 일생이 달려있다 아인교. 그야말로 1,000엔짜리 지폐도 문질러 보고, 만져보고, 뒤집어 보고, 비쳐볼 정도로 주의해서 사위 될 사람 고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이소.”(150-151쪽)

“그땐 정말로 장모님이 귀신이나 뱀같이 보였지예. 그야말로 지는 뱀에게 물린 개구리처럼 위축되어, 모기 우는 소리로 ‘개골개골’ ‘빙신빙신’이라고 훌쩍이는 게 다였지예.”(153쪽)

위에서 보듯 가네야마 할망이 요구하는 혈통 증명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 조건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자신의 결핍현실에 돌파구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의 빌미를 그런 핑계로 내세웠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진이 느낀 자신의 결핍 현실, 그로 인한

열등감과 처참한 심정 등을 여실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진이 선택한 돌파구는 매일 저녁 뒷병 소주를 들고 찾아가서 두주불사하는 가네야마 할망과 대작하는 것이었다. 원래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지 못한 상진이었지만, 맘에 드는 색시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저쪽이 한 손으로 한 되들이 술병을 들이대면, 이쪽도 그렇게 맞서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고주망태가 된 상진이 계속해서 나주 김씨의 후손임을 들먹이며 명문가의 혈통을 주장하자 참다못한 할망이 이제야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쫓쫓, 절간 중놈같이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기고. 좋다, 본관은 우선 놔두자. 너는 대체 얼마 갖고 우리 정자 달라카노?”

“돈, 돈 같은 거 엄습니데이. 지는 그 대신 썩의가 있습더.”

“성의 갖고 밥 묵고 살것나?”(155쪽)

이렇듯 노골적인 편견에도 아랑곳없이 상진의 공세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된다. 그러다보니 본디 술이 약한 그는 가네야마 할망 앞에서 고꾸라지기 일쑤였다. 그런 경우면 할망도 이불을 덮어주는 등의 배려를 보일 정도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드는 날들이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정자와 상진이 가끔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모습을 할망도 넉지시 알고는 편견 아닌 편견으로 휘방을 놓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망의 승낙은 좀체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 날 최후의 일전을 각오하고 고주망태가 된 상태의 상진이 할망의 주량에 감탄하며 내뱉는 말에서 반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참말로 어머니는 대단하십니더. 찌는 마 어머니 같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심더. 참말입니더”

“니 진짜 내 아들 되고 싶나?”

“그야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찌를 아들로 뺏아주신다 카면 찌는 기꺼이 아들이 되겠심더” (중략) “니, 내 아들 될라카면 좀 어려운데 참을 수

있었나? 좋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들하고 함께 미싱 밟아라. 정자도 니하고 같이 미싱 밟으면 좋아할기다. 어땡노, 그랄래?”

“그카면 찌가 정자하고 함께 살아도 된다는 겁니꺼?”

“오냐 우리강 같이 살자”(158쪽)

오누이를 키우며 살아온 과부 할망이 드디어 상진이를 데릴사위로 맞아들이는데 성공하는 장면이다. 그리 넉넉지는 않으나 그래도 좁다란 공간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하청 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할망, 외톨이로 이카이노에 흘러들어온 상진의 처지야 이보다 훨씬 못하다. 문자 그대로 혼인이 바로 결핍 현실에 대한 이들의 돌파구가 된 셈이다. 이리하여 상진이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가네야마 할망의 일거리는 점점 늘고, 신용까지 갖추면서 그 규모가 달라지게 커져, ‘하청의 하청을 탈피해 메이커 직속 하청으로까지 발전’했는가 하면 ‘가네야마 피혁제품 가공소’라는 간판까지 내걸 정도로 성장했다. 상진이 또한 봉제 공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그 피죄죄한 면모를 일신함은 물론, 지역사회 유지로서의 대접을 받기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공장의 최고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 즉 장모를 일선에서 물러나 좀 쉬게 하고 자신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부단의 노력을 보인다. 그러나 가네야마 할망이 쉽게 그 자리를 내놓을 리 만무하다. 상진이 적당한 때를 노려 그 말을 꺼낼 때마다 할망은 번번이 ‘니는 아직 멀었다’는 말과 함께 ‘얼른 이카이노 최고의 사우나 돼라’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상진은 그야말로 ‘장모한테 불알 잡히기까 아무것도 맘대로 못하는 바보’라고 술자리의 놀림감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이카이노 제일의 사장이 될 것’이라며 술판을 벌이고 호기를 부리기도 한다.

이 모두가 혼인을 매개로 스스로 마련한 결핍 현실로부터의 탈출구이다. 이렇게 혼인을 통해 함께 마련한 상생의 공간이 바로 처가이자 탈내수공업 공장인데, 이곳에도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공존한다. 이는 바로

자기 편향적 욕망과 가치에 몰두하는 이기적 영역 또한 혼인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아울러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2.4. 바다 건너 출구의 벽과 협로

<순이의 결혼(スニの結婚)>³³⁾ 또한 결핍 현실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위에서 본 작품들과 그 성격을 함께 한다. 그러면서도 혼인 상대가 재일한인 남성과 결혼하는 제주도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이와 함께 작품의 주인공도 재일한인이 아니고 한국인 여성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또한 재일한인의 혼인에 얽힌 결핍 현실과 그 탈출구 모색의 한 단면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핀 작품들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³⁴⁾

순이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기슭 농민의 8녀 1남 가운데 다섯 번째 딸이다. 그녀의 부모는 아들 가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딸 다섯을 두고, 거기다 내리 셋을 더 낳은 뒤에 비로소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정 내적 위상이 어떠할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위의 둘은 초등학교, 그 아래 둘은 중학교만 겨우 마친 형편이었다. 순이는 그래도 행인지 불행인지 공부를 꽤 잘한 덕에 제주시의 유명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고향의 관광국에 근무하면서 막내 동생 뒷바라지로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노처녀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다.

그동안 그녀는 두 번의 연애에 네 번의 실연을 당한 경험뿐, 마땅한

33) 『호르몬 문화(ほ르몬文化)』 7호(東京, 新幹社, 1997년 2월), 131-138쪽을 텍스트로 한다.

34) 주인공 순이의 상대역 즉, 남편은 재일한인으로서의 각종 결핍 현실에 송두리째 노출된 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그의 혼인 문제는 특히 그러하다. 일본에서는 혼인 상대자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기에 그러한 결핍 현실로부터의 탈출구를 고국에서 찾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 남녀의 목표가 일치했던 것이다.

신랑감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아래 동생이 약혼을 하면서 순이의 결혼을 다그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껏 순이는 개인의 자기 역할 기대를 누리지 못한 채 남동생을 위한 학비조달자로서의 임무만을 수행하였다. 이런 형편이었으니 순이는 꽃다운 처녀시절을 허송한 셈이 된다. 이런 무미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특별한 인생을 꿈꾸는 그녀에게 ‘재일동포 사업가’라는 사람과의 맞선 권유가 들어오자 달콤새콤한 느낌과 함께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이런 그녀의 들뜬 마음과는 달리 재일동포와의 결혼에 실패한 제주도 여자들의 사례를 늘어놓는 부모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하다.

“일본에서 결혼할 수 없어 제주도까지 아내를 찾아온 남자는 변변치 못해’라는 것이 부모님의 일치된 최종 의견이었다. 나중에 부모님의 이야기가 옳았다고 깨닫게 되지만 순이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순이는 자신의 인생이 특별한 것이라고 계속 생각해왔다. 자신의 인생이 특별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10대, 특별한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던 20대, 곧 30대가 된다. 자신만의 힘으로는 특별한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이는 이 맞선 이야기에 인생을 걸기로 했다.”³⁵⁾

이리하여 순이는 아버지와 함께 맞선 자리에 나온 38세의 재일동포 노총각을 만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총각의 외모에 지적인 냄새를 느끼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풍채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면서 까닭모를 호감을 갖고는, 스스로를 행운아라 여기며 적

35) 위의 책, 132쪽. 「日本で結婚できないで済州島にまで嫁を捜しに来る男にろくなのはいない」というのが両親のすろった最終意見だった。後に両親の話が正しかったと悟ることになるが、スニは両親の話信じなかった。いや、信じたくなかったのである。スニは自分の人生が特別なものになると思いつづけていた。自分の人生が特別なものになると信じていた十代、特別なものにしようとかあがいた二十代、もうすぐ三十歳になる。自分だけの力では特別な人生を手に入れられ得ないと知ったスニはこの見合い話に賭けようと思った。

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이어지는 부모 설득, 약혼반지 교환, 약혼 기념사진 촬영, 약혼 여행 등의 제반 절차를 5일 만에 마무리 한다. 약혼 여행 다음에 남자(사실상의 남편)는 일단 일본으로 돌아가 순이의 도일을 기다리기로 약속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마치 요식행위처럼 치르고, 그 후속 조치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순이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날만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순이의 일본행을 만류하고 나서는 친척이 나타난다. 이유는 ‘신랑 될 사람이 정신병으로 몇 년이나 입원한 경력의 소유자’란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의 반대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순이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약혼 반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순이는 부자의 손가락 끝이 모두 새까만 것을 잠깐 동안 의아히 여긴 적이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잠깐 스쳐가는 순간이었을 뿐, 이들의 혼인은 이른 바 ‘서로 묻고 싶지 않은 것을 재빠르게 알아채고 서로의 타산을 묵인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사천리의 결혼’이었던 셈이다. ‘이 사람은 마음의 일부를 어딘가에 놓아 두어버렸구나.’라는 느낌을 첫날밤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대로 고국에 남아 자극 없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일본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고, 자신의 인생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³⁶⁾

그런데, 막상 순이에게 다가온 일본의 보금자리는 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장밋빛 출구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맞은 순이의 일상은 무료함 그 자체였다. 시부모와 남편, 이 세 사람은 함께 윤희유가 흘러내리는 선반에서 맨손으로 나사를 깎아 만드는 가내수공업의 주인 겸 노동자였던 것이다. 그들의 손가락 끝이 새까맣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밝혀진 셈이다. 남편은 작업을 끝낸 뒤의 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숙소에 드러누워 온종일 비디오만 보고 지낸다. 그러다 배고프면 먹을 것 달라 하고, 밤

36) 위의 책, 134-135쪽을 참조.

이면 치르는 성생활, 그밖에 순이는 아무데도 필요가 없는 존재로서의 나날이었던 것이다. 부부간의 대화나 외출은 물론, 외부인과의 교류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우선 말이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었으니까.

정신병 전력에다 타인과의 교류는 물론, 마음의 창마저 닫은 채 사는 아들을 위해 ‘마누라가 있으면 혹시나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발단된 혼인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제일 사회에서 혼인 상대자를 구하기는 어려운 처지일 터, 이에 제주도 처녀를 물색하게 되고 그 의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순이가 말려든 것이다. 말하자면, 아들의 정신을 좀 더 밝고 활달한 모습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혼인이다. 이 욕망에는 정작 혼인 당사자인 순이의 생각이나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순이 역시 남편의 공허한 마음을 어렵פות이 느끼기는 했지만 일본에 와서 같이 생활하게 된 후에야 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이때의 순이의 심정을 작가는 ‘출구가 없는 절망감’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출구를 찾아서 제주를 나왔지만 이 마을에 와서 완벽하게 출구가 봉쇄되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이외에는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나타내고 있다. 순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 인근 마을로 시집온 제주도 여자는 더러 있었던 듯하다. 그 중의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순이의 눈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순이가 사는 문화주택 근처에 있는 찻집으로 시집온 33세의 제주도 출신 여성이다. 그녀는 세 명의 남자 아이가 있는 40세의 남성과 결혼했던 것인데(사전 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음), 더 이상의 아이 갖기를 원하지 않는 남편의 뜻에 반기를 들고 ‘나는 가정이 아니다’라며 돌아가 버리는가 하면, 그 남자는 ‘다시 제주도로 가서 30세의 다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왔다.’고 적고 있다.

순이 역시 그녀처럼 제주도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 소설의 의미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순이의 대응은 그녀와 다르다. 출구가 막힌 생활 가운데서도 순이는 임신을 하고, 이어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를 계기로 순이는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된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임신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들의 정신 상태를 우려한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배가 점점 불러오자 순이는 시어머니에게 자기 마음 속을 털어 놓는다. 이에 시어머니는 ‘결혼이라도 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는데, 너까지 휩쓸리게 해서 미안하네. 결혼시키지 않고 놔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면서 흐느끼는 것이 아닌가.³⁷⁾ 순이는 도리어 시어머니를 달래며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한다. 시간이 지나 산고를 거쳐 아이가 태어나자 달려온 시부모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는 아들에게 ‘너 아이다’라고 수차례 일깨우는가 하면,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순이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쳐 왔지만 한 사람의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 모두 잘 보살펴 주자. 지금은 아이도 있다. 몇 명의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해보자. 순이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되돌아보는 남편에게 힘을 모아 미소를 보냈다.”³⁸⁾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재일의 청년이 본국 처녀와 중매로 혼인하려는데, 그 상대로 무미건조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는 제주도 처녀가 말려들었다고나 할까. 이들의 혼인 과정, 그리고 결혼 초년의 삶에 얽힌 이야기이다. 얼핏 보아 이 작품은 결핍 현실과 그 돌파구로서의 혼인이라는 의미와 함께, ‘미지의 세계 일본, 그곳에

37) 위의 책, 137-138쪽을 참조.

38) 위의 책, 138쪽. 스니はもういいと思った。自分の人生を特別なものにしようと思いがてきたが、人間一人のために自分の人生を使ってもいいじゃないかと思えてきた。みんなまとめて面倒見てやろう。いまは子どももいる。何人の人間を幸せにしてあげられるか分からないけど、頑張ってみよう。スニは夫の名えを呼んだ。そして振り向いた夫の力をふり絞って微笑みかけた。

사는 제일동포와의 결혼'이라는 자기 환상에 빠져 서두른 결혼은 자칫 불행의 길로 떨어지기 십상'이라는 듯한 설정을 아울러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순이는 결코 그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관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로써 이 작품은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비록 자신에게는 어려운 날들이지만 이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에서 우리는 가정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남편의 상처, 시어머니의 욕망을 함께 보듬어 안으려는 순이의 각오를 통해 우리는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성원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이 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결핍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었던 셈이다.

만약 순이가 이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했더라면 그 상처와 결핍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대물림될 것이다. 그러므로 순이의 행위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현재적 결핍을 해소하는 노력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소망의 발로가 아닐까 한다. 이 작품이 반전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혼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어느 일방의 행복 즉, 결핍에 대한 충족이나 소망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일구어 나감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것이 혼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3. 마무리

재일한인의 삶은 재중한인, 재미한인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른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그 독자성이란 일제강점기 폭압 통치로 인한 희생양으로서 과거의 식민지 지배국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사정 때문에 생겨난 것이

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가 파란만장할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 또한 특이한 경우가 많다. 의식주, 교육, 취업, 혼인 등의 일상적 삶은 물론 정치적 참여, 국적 선택 등에서도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혼인 문제를 중심으로 재일한인의 삶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함이 본고의 목표이다. 재일한인 소설 중에서 혼인 문제 즉, 부부관계를 맺거나 부부생활을 영위하는데 얽힌 사연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작품은 필자가 찾은 것만도 10여 편에 이른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혼인을 통해 결핍 현실을 담아내면서 그 결핍으로부터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그 서사적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에 갈음하고자 한다.

1. 결핍의 현실 때문에 혼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음은 물론, 그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그린 작품이 1966년에 발표한 김경식의 <낙일>이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말엽의 폭압 통치, 유학생에게까지 뺏긴 징병의 마수, 그 마수로부터의 도피, 광복 이후 혼란기의 빈번한 밀항, 일본 여인과 이룬 가정, 밀항자 단속 때문에 파괴된 가정, 그로 인한 고통과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 내외가 겪는 삶은 광복 전후의 혼란기를 무대로 전개되는 재일한인의 결핍 현실은 물론, 그 출구조차 찾을 길 없는 암울한 일상 바로 그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라 이를 만하다.

2. 김석범의 <결혼식 날>은 1978년의 작품이다. 여기서 작중화자인 ‘나’는 재일 1세이다. ‘나’는 오늘 친구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26년 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결혼식을 떠올린다.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은 커녕 한 마디 축하 인사조차 보내지 못했던 나의 추억은 온통 결핍 현실 바로 그 자체였으며, 그 탈출구 또한 막힌 상태였다. 그러므로 친구에 대한 부담감은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오늘 그 자녀 즉 2세의 혼인에서 그 출구를 발견하고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는 결핍 현실로 인한 1세의 안타까움과 그로부터의 탈출구가 2세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련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재일한인의 특이한 삶이 대물림되면서 조금씩이나마 밝은 빛을 더해가는 모습을 더듬게 된다.

3. 원수일의 <뱀과 개구리>는 1983년에 발표한 작품인데, 이야기의 무대는 오사카의 이카이노이다. 상진은 가죽점퍼 봉제업소의 견습공인데, 그는 빈털터리 주제에 몸뚱이 하나만으로 이 마을에 홀리든 노총각이다. 재봉틀 두어 대를 놓고 봉제 하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과수댁 가네야마 할망 또한 가정적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는 혼인을 통해 서로의 결핍을 해소하게 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상진은 사랑하는 처녀를 아내로 맞은 대신 가네야마 할망에게 종속당하는 처지가 된다. ‘뱀과 개구리’란 제목이 바로 그 상징인 셈이다. 이처럼 혼인을 통해 스스로 마련한 출구에도 함께하는 공생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각자의 목표를 부단히 추구하려는 이기적 영역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두루 보여주는 작품이다.

4. 현행자의 <순이의 결혼>은 1997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병력을 지니고 있는 재일의 청년, 이 청년의 부모는 혼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행여나 아들의 마음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상대로 무미건조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제주도 처녀가 걸려들었다고나 할까. 이 작품은 결핍 현실과 그 돌파구로서의 혼인이라는 의미와 함께, ‘미지의 세계 일본, 그곳에 사는 재일동포와의 결혼’이라는 환상에 빠져 서두른 결혼이 몰고 올 위험성도 아울러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나서는 여주인공의 마음에서 우리는 혼인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5. 위의 논의로 미루어볼 때 혼인의 진정한 의미는 어느 일방의 행복

즉, 결핍에 대한 충족이나 소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헤쳐가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일구어 나감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석 대상 작품의 창작 시기가 우연히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인데, 이에 따라 결핍현실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자료>

『漢陽』, (東京, 1966년 4월)

『三千里』(1978년 겨울, 16호)

元秀一 지음, 김정혜, 박정이 공역, 『이카이노 이야기』, 새미, 2006.

『호르몬 문화(ほ르몬文化)』 7호(東京, 新幹社, 1997년 2월)

前田憲二 외, 『百萬人の身世打鈴 -朝鮮人 強制連行・強制労働の恨』, 東方出版, 大阪, 1999.

이봉언 지음, 윤상인 옮김,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동아시아사, 2007.

중국조선족청년학회 편, 『중국조선족 이민실록』, 연변인민출판사, 1992.

<논저>

福岡安則, 『同化と異化のはざまで-在日若者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葛藤-』, 新幹社, 1991.

福岡安則, 『ほんとうの私を求めて-在日二世三世の女性たち-』, 新幹社, 1991.

임채완, 장운수 외, 『재외한인 집거지역 사회 경제』, 집문당, 2005, 95~156쪽.

최석신 외 4인, 『재일코리아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2005, 3~324쪽.

김태영 지음, 강석진 옮김, 『저항과 극복의 갈림길에서』, 지식산업사, 2005.

이재봉, 「재일한인 문학의 존재방식」, 『한국문학논총』 제32집, 한국문학회, 2002. 361-393쪽.

이헌홍, 「재일한인의 생활사이야기와 서사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4

- 집, 2003.8, 89-142쪽.
- 이재봉, 「해방 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문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359-390쪽.
- 하상일, 「재일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 추선진, 「리은직 소설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호, 2006, 359-379쪽.
- 이헌홍, 「에스닉 잡지 소재 재일한인 생활사소설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7집, 2007.12, 112-162쪽.
- 이헌홍, 「재일 한인마을 이야기의 두 모습」, 『한국민족문화』 제32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10. 187-222쪽.
- 이헌홍, 「재일한인의 삶과 이야기」-생존현실과 망향의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7집, 2008.12. 113-146쪽.
- 추선진, 「리은직 소설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호, 2006, 359-379쪽.
- 이헌홍, 「재일한인 생활사소설 연구-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53-197쪽.
- 김찬정 지음, 박성태 외 공역, 『재일 한국인 백년사』, 제이앤씨, 2010.

<Abstract>

Marriages in the Novels by Japan-based
Korean Authors, a Symbol of the 'Reality
with a Lack', and Its Exit

Lee, Heon-Hong

Of the novels written by Japan-based Korean authors, those which narrate about the episodic stories centering around the subject of marriage – namely, certain sorts of stories developed through the character's involvement into a husband/wife relationship or the maintenance of his/her marriage life – are more than a few. In my personal research so far, there are about ten works that specifically depict marriage lives. In this paper, among those works, the focus is put on the narrative development and the meaning of such cases that the reality of 'life with a lack' is described by means of 'marriage' and, also, exits from the state of lack are sought out therein. The overview of such ca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For the works that depict a certain situation in which the reality of 'life with a lack' mars the actual sustaining of the marriage life and, also, blurs the vision for any possible exit, *Nak Il* by Gyoung-Sik Kim(1966) is a good example. In the novel, the kind of life that the main characters, a married couple, go through represents not only the reality with a lack for Japan-based Koreans – in the chaotic times around the Korean Independence – but also the gloomy, dark aspect of their everyday life with no exit to be found

whatsoever.

2. In Seok-Beom Kim's *A Wedding Day*(1978), the devastation oozed out of the reality with a lack is portrayed through the life of a first-generation Japan-based Korean. The obtainment of the basis of the exit from such a reality is barely made possible when the second-generation Koreans come into the scene. In that phase, one can get a grasp of the life changes that the atypical lives of the Japan-based Koreans come to gain brightness bit by bit while showing the inevitable inheritance.

3. The son-in-law and the mother-in-law featuring in Soo-Il Won's *A Snake and A Frog*(1983) attempt to resolve the lack of his own by means of a marriage. The young man, however, falls into a situation in that he has to remain subordinate to his mother-in-law at the cost of getting the love of his life to become his wife. With the marriage functioning as a key clue, this story illustrates that even the self-acquired exit has a symbiotic area and, also, that the individual obsessions with their goals represent the egocentric dimension of the very reality.

4. With a focus on 'the reality with a lack' and the entailment of marriage as an escape from such a reality, *Soon-Yi's Wedding*(1997) by Haeng-Ja Hyun shows us the possible risks/dangers of any marriage done in haste from the illusion of 'getting married to a Korean who lives in Japan, a new, unknown world'. It, nevertheless, invites the readers to rethink the true meaning of marriage by describing the main female character's mental attitude to calmly accept the circumstances as her given fate, not a misfortune, and look for the roles of her own in life.

5. From the above stated discussion, we come to be reassured of the simple truth that the true meaning of marriage lies not in the happiness of one party (i.e. the replenishment of a lack or the accomplishment of a dream or wish) but in the process of working toward a new life and a new world while embracing each other's wounds and getting over the scars together. In addition, noticing that those literary works analyzed here happen to have the 60's, 70's, 80's, and 90's as their chronological settings respectivel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also should be worthwhile to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manner in which characters react to the reality with a lack.

Key Words : novels by Japan-based Koreans, novel-like
configurations of the marriage, symbols of the reality
with a lack, escape from the reality with a lack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1월 29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